

##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경영전략

이용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본 논문은 경영학에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그간 경영학자들의 주목 받지 못했던 오스트리아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주요 논점들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의 주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스-하이에크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독특한 관점은 그 유명한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주류경제학과는 달리 불균형 속에서의 시장과정과 방법론적 주관주의, 그리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는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원기반이론의 발판을 마련한 펜로우즈(Penrose)의 저서,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시카고 자유주의 경제학과 함께 90년대 자원기반이론의 형성에 일조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계산논쟁에 대해 자세히 검토를 한 후, 이 논쟁에서 드러난 하이에크의 지식이론과 시장과정이론을 전략계획이론(Strategic Planning)과 포터의 이론, 그리고 자원기반이론에 비판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우선 사회주의식 중앙계획과 자생적 시장질서간 선택의 논쟁을 최근 기업 전략계획수립의 논쟁과 비교, 분석한 결과, Planning학과 보다는 Learning학과가 하이에크의 지식이론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하이에크의 지식론을 조직에서 지식과 의사결정권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사회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좋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조직인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터 이론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한 결과, 과거 자원기반이론 학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포터의 진입장벽과 이동장벽의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고 그의 이론이 경영학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비판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경쟁과정이 자원기반이론의 '자원장벽'이란 개념형성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복잡계 이론, 진화경제학과 오스트리아 학파와의 유사성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오스트리아 관점이 추후 공헌할 수 있는 다른 경영학 분야들로 기업이론, 지식경영,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오스트리아 경제학, 자유주의, 전략기획, 포터, 자원기반이론

논문투고일 : 2010. 2. 2    수정논문접수일 : 2010. 4. 25    게재확정일 : 2010. 4. 26

## 1. 서론

학문으로서 경영전략 분야는 1980년대 초 태동한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그 중심엔 포터의 경쟁전략 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외부환경과 내부자원으로 양분하여 설명하는 이 구도 하에선 더 이상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올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물론 경영전략 분야에는 이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 경제학 및 조직학의 여러 이론들이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경제학적 배경의 신제도주의 이론(Coase, 1937; Williamson, 1975, 1985), 진화경제학(Nelson and Winter, 1982), 대리인 이론(Jensen and Meckling, 1976), 실물옵션이론(Myers, 1977)들과, 조직학 및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상황이론(Burns & Stalker, 1961; Lawrence and Lorsch, 1967), 조직권 생태이론(Hannan & Freeman, 1977) 등이 그것이다. 이들 이론들은 경영전략의 여러 범위에서 활용되며 그간 경영전략 분야에 풍성한 논리를 더해 주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경영학과 매우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른 인접이론에 비해 간과되었다고 생각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를 경영전략 분야에 접목해 보고자 한다. 흔히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부정적이고 친 시장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학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석단위를 기업에 맞추어 경영자와 경영학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오스트리아 경제학만큼 시장과 경쟁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는 경제이론은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류경제학의 비현실적인 가정 - 예를 들면 균형(equilibrium)의 가정 - 을 하지 않기엔 학문적으로도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경영학 전체와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이 분야에 경영학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물론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인 위저(Wieser)로부터 교육받은 슈페터는 경영학자들 사이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왈라시안(Walrasian) 균형이론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또한 그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에서(Schumpeter, 1942), 그는 정통 오스트리아 학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Vaughn, 1994).

하지만 과거에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경영전략학과의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현재 주요 경영전략이론 중 하나인 자원기반이론은 오스트리아 경제학 이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자원기반이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Penrose(1959)의 저술,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이 오스트리아 경제사상의 영향 하에 쓰였음을 지적하고 있다(Loasby, 1991, 1999; Foss, 1998; Mahoney & Michael, 2005). 실제로 대표적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중의 하나인 Machlup은 Penrose의 석·박사 과정을 지도한 오랜 멘토였으며, Connell(2007)은 1955년 그들간에 오고 간 서신을 분석하여 Machlup의 방법론적 주관주의가 Penrose의 저술에 영향을 끼친 점을 밝혀낸 바 있다. 오스트리아 관점은 단지 방법론적 측면에서만 자원기반이론과 연관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Jacobson(1992)은 오스트리아 관점에서 경영전략이론의 수립을 도모하였으며, 그것을 Bain(1956)과 Mason(1939) 전통의 하버드 산업조직경제학과를 잇는 포터의 전략이론과 대비시켰었다. 이때 Jacobson(1992)이 제시한 이론은 불균형(disequilibrium) 상태에서 자원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무형자산(invisible asse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자원기반이론과

매우 흡사하였다. 당연히 포터이론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이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Jacobson(1992)도 당시 자원기반이론의 대두를 의식한 상태에서 그의 주장에 차별성을 두고자 했으나, 근본적으로 두 견해 간에는 많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자원기반이론에 영향을 미친 경제학 분야를 꼽으라면 많은 학자들은 진화경제학(Nelson & Winter, 1982)을 꼽겠지만, 하버드 산업조직경제학과와 일정한 각을 두어왔던, 보다 자유주의적 관점의 시카고 산업조직학과(eg. Stigler, 1968; Demsetz, 1973)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Rumelt, Schendel & Teece, 1991). 그러나 시카고 학파와 같은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녔을지라도 오스트리아 학파는 시카고 학파와는 달리 독자적인 측면에서 자원기반이론의 형성에 영향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균형관점을 견지하는 시카고 학파와 시장불균형과 방법론적 주관주의를 견지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와는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90년대 자원기반이론을 주장하던 일부 학자들이 자신들의 자원기반관점을 '네오 오스트리아' (Neo-Austrian)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Hill and Deed, 1996). 그러나 오스트리아적 관점은 1990년대 자원기반이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 후, 경영전략 문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단지 그 후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아주 단편적인 개념을 활용한 경영학 연구가 일부 있었고(e.g. Young, Smith & Grimm, 1996;; Zaheer & Zaheer, 1997; Shane, 2000), Robertson & Yu(2001)와 Yu(2003) 등이 오스트리아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분석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고, 그 맥을 잇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 첫째,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형성배경, 발달과

정, 주요 개념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이 분야가 경영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방대한 사상체계를 짧은 지면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경영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하이에크의 지식이론과 자생적 질서론, 그리고 시장과정(Market Process)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주요 개념들이 경영전략의 핵심 이론들 - 경영계획수립에 관련된 이론, 포터의 이론, 그리고 자원기반이론 - 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II.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간략한 역사와 특징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등장은 근대 네오클래식 경제학의 발달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한계효용학파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한다. 한계효용학파는 1870년대 왈라스(Walras), 멩거(Menger), 그리고 제본스(Jevons), 이 세 명의 학자가 거의 동시에 유사한 가치론(theory of value)을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 중의 한 명인 칼 멩거(Carl Menger)가 바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조로서 그는 1871년 출판된 그의 저서 '국민경제학의 원리'를 통해 고전학과 경제학의 객관적 생산비에 근거한 가치론(theory of value)과는 달리 주관적인 한계효용에 의거한 가치론을 주장했다(Vaughn, 1994). 제품의 궁극적 가격(가치)는 그 생산에 들어간 비용으로 인해 결정된다고보다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후 멩거의 이론은 그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은 뵘 바벨크(Eugen von Böhm-Bawerk)와 위저(Fredrich von Wieser)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다. 뵘 바벨크는 주관적 가치론에 이자이론과 자본이론을 결합하여, 시간선호에 대한 보상

이 될 때까지 우회생산(roundabout production)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위저 또한 주관주의에 근거해 기회비용의 개념을 처음 경제학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이 맹거의 이론을 확대, 발전시키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은 일약 경제학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영미의 경제학자들이 유럽을 방문할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한계효용의 개념, 자본이론과 이자율 이론, 기회비용 이론 등의 오스트리아 경제이론들이 주류경제학(neoclassical)에 흡수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 심지어 일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 자신마저도 -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더 이상 독립적 학파로 간주하지 않으려 했다(Kirzner, 1987).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은 모두에게 착각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30년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과 좌파 경제학자들 간에 벌인 그 유명한 ‘사회주의 계산논쟁’(socialist calculation debate)이었다. 오스트리아 학파로서 처음 이 논쟁에 휩싸이게 된 학자는 미제스(Ludwig von Mises)로, 그는 볼셰비키가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지 불과 몇 년 후에 사회주의의 멸망을 예언했었다. 하지만 좌파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미제스와 이들 간에 벌어진 사회주의 계산논쟁은 경제학설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논쟁이 발발하자 미제스의 제자인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도 지식이론의 관점에서 이 논쟁에서 사회주의 비판에 가세하게 되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친 이 논쟁에서 미제스-하이에크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당시 사회주의가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되어 있던 상황에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주장은 거친 저항을 불러왔고, 1940년대에 이르러 좌파경제학자들이 합리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확

립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논쟁에 대한 당시의 ‘표준적’ 평가였었다(권혁철 외, 2004). 하지만 나중에 알려졌듯이 좌파경제학자들과 미제스-하이에크 간에는 서로 다른 시장에 대한 개념을 가졌기에 설득이 어려웠던 것이었다. 미제스-하이에크는 이 논쟁을 통하여 균형관점의 네오클래식 경제학으로 재무장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개념과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김이석, 2005; Kirzner, 1987). 그러나 미제스-하이에크는 여기서 네오클래식 경제학과는 다른, 자신들 학파의 본래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고(Kirzner, 1988) 이를 근거로 독특한 오스트리아적 이론의 전통을 살려 나아가, 2차 대전 후에 주목 받은 소위 ‘신 오스트리아 학파’ 형성의 토대를 닦았다.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법학, 심리학 등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훗날 사회철학자로서도 명망을 높인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산논쟁 이후 또 다시 그 시대의 지적 조류상 이기기 힘든 논쟁에 뛰어들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을 정당화하던 케인즈와의 논쟁이 그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 식의 처방에 한참 관심이 증가할 때 케인즈의 오류를 지적한 하이에크는 동료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파묻혀 그 후 40년간 고독한 길을 가야만 했다. 하지만 결국 70년대 케인즈의 이론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그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1974년 하이에크는 노벨상을 받게 된다. 더욱이 그를 사회철학자로 유명하게 만든 대중적 저서인 ‘노예의 길’(Road to Serfdom, 1944)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그의 명저, ‘자유헌정론’(Constitution of Liberty, 1960)에 감명 받은 대처가 영국에서 집권하여 하이에크의 사상을 받아들이자, 하이에크와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아래 <표 1>은 Boettke and Leeson(2003), Vaughn(1994), 그리고 Kirzner(1992)

를 참조하여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을 세대별로 정리하여 주요 저술 및 활동들을 요약한 것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과거 주류경제학에 많은 부분 그 내용이 흡수되었다. 그럼 이제 고유하게 남은 오스트리아적 관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 Machlup(1982)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가진 전통적 특징을 <표 2>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Kirzner(1987)는 Machlup이 제시한 6가지의 중요함을 인정은 하지만 이중 대부분이 이미 주류경제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후, 오스트리아 학파 고유의 특징은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경험을 거치면서 1940년대 이후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 경제학에 대해 재인식한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첫째, 시장과정(Market Process)의 관점으로 시장을 지식활용과 지식발견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고 둘째, 급진적 불확실성의 관점으로(Lachmann, 1977, 1978), 개인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Kirzner(1987, 1992)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이 두

**<표 1> 세대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분류**  
(주요 학자 및 주요 저술은 굵은 글씨로 표시)

세대	대표학자	주요 활동 및 저술
1세대	<b>멩거(Carl Menger)</b>	- 오스트리아 학파 창시자 - 주관적 한계효용에 의한 가치론 제시 - 독일역사학과와의 '방법논쟁'  - 주요 저서: <b>"국민경제의 원리"</b> (Menger, 1871)
2세대	<b>뵘 바벨크(Böhm-Bawerk)</b> 위저(Wieser)	- 뵘 바벨크의 자본과 이자의 이론 - 위저, 기회비용 이론 제시
3세대	<b>미제스(Mises)</b> 마이어(Mayer)	- 미제스, 좌파경제학자들과 '사회주의 계산논쟁'(1920~30) - 주요 저서: <b>"Human Action"</b> (Mises,1949)
4세대	<b>하이에크(Hayek)</b> 하버러(Harberler), 모겐슈테른(Morgenstern), 마흐롭(Machlup), 로젠스타인-로단(Rosenstein-Rodan)	- 하이에크, 사회주의 계산논쟁에 참여 - 4세대는 주로 2차 대전 후 주로 미국에 건너와서 활동 -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간의 논쟁 - 하이에크, 노벨 경제학상 수상 (1974)  - 주요 저서: <b>"개인주의와 경제질서"</b> (Hayek,1948), <b>"노예의 길"</b> (Hayek, 1944), <b>"자유헌정론"</b> (Hayek, 1960), <b>"치명적 자만"</b> (Hayek, 1988) 등
5세대	<b>커즈너(Kirzner)</b> 로스바드(Rothbard) 라흐만(Lachmann)	- 커즈너,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이론을 계승하여 시장과정(Market Process) 관점에서 기업가 이론을 제시  - 주요 저서: <b>"경쟁과 기업가정신"</b> (Kirzner, 1973)

&lt;표 2&gt; 주요 학자들이 주장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특징

학자	특징	비판
Machlup(1982)	1) 방법론적 개인주의 2) 방법론적 주관주의 3) 한계주의 4)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호와 선호 5) 기회비용 6) 소비와 생산에서의 시간선호	Kirzner(1987)는 이 6가지가 이미 주류 경제학에 흡수되었다고 주장
Kirzner(1987)	1) 시장과정(Market Process) 관점 : 시장과정은 불균형이고 학습과 발견의 과정 2) 급진적 불확실성 (Radical Uncertainty)	
Lachmann(1978)	1) 급진적 주관주의 (Radical Subjectivism) 2) 시간(Time)의 중요성 : 시간이 지나면 지식도 변하고 지식이 변하면 행동도 변한다. 3) 방법론적 개인주의	
O'Driscoll and Rizzo(1985)	시간 (Time)과 무지 (Ignorance)의 경제학	

가지 특징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계승되어 발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이런 주장은 그의 동료이자 경쟁자인 Lachmann(1978)과 그의 영향을 받은 O'Driscoll and Rizzo(1985)의 주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표 2> 참조). 본 논문에서는 현대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대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Kirzner(1987)의 주장을 따라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유의 특징을 시장과정의 중시와 급진적 불확실성 (또는 급진적 주관주의)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원천은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통해서 드러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통찰력이다(Kirzner, 1987; Vaughn, 1994).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핵심쟁점과 미제스-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적 견해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사회주의 계산논쟁으로 본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시장과정(Market Process) 관점

#### 3.1 사회주의 계산논쟁과 미제스

근대 오스트리아 학파의 중심개념은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났고, 또 그 개념들이 경영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논쟁의 발단과 이론적 전개과정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은 균형이 아닌, 불균형 속의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은 이 논쟁을 통해서 공식화되었는데, 이는 경영전략의 중추 이론인 자원기반이론과 포터의 이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계획”(planning)이 효과적인가 아닌가의 논쟁은 마치 과거 경영전략 문헌에서 정형화된(formal) 전략계획과정(strategic planning process)이 과연 유용한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것을 연상시킨다(Mintzberg, 1994).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발단은 1920년 미제스가 쓴 논문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시스템은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미제스는 우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재(예를 들면 기계설비)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의 중앙 의사결정자는 제품 생산 시에 여러 가지 생산대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시장사회주의자들(market socialist) -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자본재는 공유화되고 소비재는 시장에 맡기자는 주의자들 - 을 의식하여, 시장에서 소비재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자본재에 대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있지 않다면, 생산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자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생산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Mises, 1920). 한마디로 미제스의 주장은 잘 작동하는 자본재 시장(혹은 자원시장)이 존재해야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이 시장가격을 신호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주장은 사회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만 이에 은연중 자원배분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가(entrepreneur)의 이론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년대와 30년대 초까지 미제스의 주장은 사회주의에 우호적이던 독일어권 경제학자들에게 큰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파레토(Vilfredo Pareto)와 그의 추종자 바론(Barone)과 같은 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무 문제없이 잘 작동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들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적절하게 맞추어 주는 시스템은 자본주의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사회주의 중앙계획자가 소비자의 기호,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균형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Klein, 1996). 그 후 1930년대 시장사회주의를 신봉하던 랑게(Oscar Lange)와 러너(Abba Learner)는 더욱 세밀한 논리로 미제스의 견해에 한층 심각하게 도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당시 왈라스의 네오클래식 균형이론으로 새로이 무장하고 있었다. 특히 랑게(Lange)는 왈라스가 일반균형이론을 도출할 때 사용한 왈라스의 경매인(auctioneer)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시장경제체제하와 같은 균형가격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이석, 2005; Vaughn, 1994). 즉, 중앙계획위원회가 우선 임의로 소비재와 자본재의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인처럼 중간에서 시행착오과정(trial-and-error)을 거쳐 점진적으로 균형가격을 계산해 도달해 가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는 랑게(Lange)식의 방식으로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결과를 결코 따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랑게(Lange)는 시장의 문제를 모든 자원이 주어진 정적인 상태에서 균형 값을 ‘계산’해 내는 것으로만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에게 시장은 단순히 정적인 측면에서 균형가격을 계산하는 곳이 아니었다. 기업가들이 역동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가격을 근거로 필요한 자본재를 판단, 이에 투자하여 자원을 조달해 생산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본 것이다. 랑게는 이 시장과정에서 기업가를 없애버리고 이를 중앙관리자로 대체함으로써 정작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 기업가 - 를 없애 버린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던 슈페터(Schumpeter)는 사회주의 계산논쟁에 관해 사회주의는 충분히 작동

할 수 있다며 시장사회주의자들의 손을 들어 준다 (물론 슈페터는 그의 저서,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Schumpeter, 1942)에서 훨씬 더 장황한 논의를 통해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 3.2 하이에크의 지식론, 자생적 질서론, 그리고 발견으로서의 시장경쟁

#### 3.2.1 지식을 '활용'하는 시장의 역할

하이에크는 이 논쟁에 약간 늦게 참여했지만, 비단 경제학뿐만 아니라 서구 지성사에 길이 남을만한 중대한 공헌을 했다. Caldwell (1988)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계기로 예전의 기술적(technical) 경제학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사회철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하이에크의 이런 '전환'의 핵심은 사회에서 지식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균형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일섭, 1999). 그가 처음 계산논쟁에 뛰어들 때, 그도 미제스와 비슷한 논리로 시장사회학자들의 의견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곧 논쟁의 초점을 계산의 문제에서 '지식의 문제'로 바꾸어 접근하기 시작했다. 중앙계획당국이 시장가격에 의지하지 않고 자원배분을 위해 완벽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계산에 필요한 모든 재화에 대한 모든 지식 - 예를 들어 모든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등 - 을 다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Hayek, 1937, 1945). 사실 랑게의 모델에서의 경매인이 합리적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중앙계획당국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이런 지식에는 객관적인 수치도 포함 되겠지만, 미래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미래 자원의 가격 등 주관적 판단의 비중이 더 클 것이다. 하이에크는 랑게가 이런 비현실적 가정을 하게 된 원인이 네오클래식 경제학의 가정들 중의 하나인 '완벽한 지식'의 가정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유명한 논문, "사회에서의 지식의 용도"에서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합리적인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의 특수한 성격은,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환경에 관한 지식이 결코 집중되거나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개의 개인들에 의해 보유되는 불완전하면서도 종종 모순적인 단편적 지식의 분산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정확히 결정된다(하이에크, 1945, p. 117; 원저 Hayek, 1945)."

즉, 경제운용에 필요한 지식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하이에크의 핵심적인 경제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경제의 문제는 사회에서 이렇게 분산된 지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는 경제의 문제를 주어진 자원배분을 위한 계산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경제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문제는 단순히 '주어진'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경제문제는, 오로지 개인들만이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회의 어떤 구성원에게 알려진 자원의 최선의 용도를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하이에크, 1945, p. 117-118; 원저 Hayek, 1945)."



여기서 하이에크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은 네오클래식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경제학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게 사회의 경제문제는 단순히 '주어진'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Hayek, 1945), 또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출해내는 것(Hayek, 1946, 1968)으로 보았다. 즉, 경제학을 순수한 선택의 논리로 보지 않고, 분산된 지식을 활용하며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이런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을 당시 네오클래식 경제학의 훈련을 받은 좌파경제학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이에크는 경제를 균형하의 자원배분의 문제로만 보는 문제가 네오클래식 경제학에 원래 내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네오클래식 균형이론으로 훈련 받은 랑게와 같은 시장사회학자들도 당연히 자원배분을 위한 계산문제에만 매달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

그럼 왜 중앙계획자는 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다 알 수 없는가? 중앙계획자는 통계적인 수치 등을 통해 집산된 정보는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집계될 수 있는 지식을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의 자원배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집계되어 한 사람에게 보고되는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 속에서의 지식'(knowledg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이라고 했다(Hayek, 1945). 이는 사회 구석구석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이 지닌, 지역적 현장지식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지식에는 암묵적 지식 (tacit knowledge)도 물론 포함된다(Polanyi, 1966). 하지만 명확하게 형식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국한되는 지식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2학기에 특정 과목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

하다거나, 어느 기업에 유희생산설비가 남아돌고 있다던가, 강원도 어떤 특정 지역의 임야가 그 가치에 비해 매우 싸게 나왔다는 등의 사적인 지식은 형식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 중요성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지식들이다. 과학적 지식과는 달리, 이런 지식들은 중앙계획자가 결코 알 수 없지만, 그가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현장의 당사자들이 큰 곤란과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다.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지식들인 것이다. 하이에크는 중앙집권화가 아닌 분권화를 통해서만 사회에서 이런 지식들이 최대한 활용된다고 보았다.

“만약 사회의 경제문제가 주로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특별한 환경변화에 대한 재빠른 적응이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이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떤 유형의 분권화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하이에크, 1945, pp. 125-126; 원저 Hayek, 1945).”

그러나 현장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자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그 또한 전체경제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조화로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는 자신의 현장지식 외에 또 다른 지식과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에크는 이런 분권화 상태에서 지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장의 가격제도라고 보았다. 그는 가격이 곳곳에 퍼져있는 현장지식의 집약체이고 또한 정보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수치로 나타내 줌으로서 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가격은 어느 누구 한 명이 집계해서 다 알

수 없는, 각처에 흩어진 '사실에 관한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모두 담고 있다. 또한 가격에 의해서 표시된 지식은 '집단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민경국, 2007), 왜냐하면 이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지식들은 물론 공급자들의 지식과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격은 특정 시점의 현장의 모든 지식을 반영하는 바로메터이기에, 시장에서 제대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사회에서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효율적 방법인 것이다.

하이에크는 더 나아가 이런 시장가격기구는 의도되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에게 의해 설계되지도 않은, 오랜 진화에 의해서 발현된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고 주장하며 계획경제체제의 인위적 질서와 구분을 지었다(Hayek, 1937, 1960). 이런 자생적 질서는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만 인간이 설계한 결과는 아닌 질서를 의미한다(Hayek, 1967). 그는 인간의 무지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생적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 이성의 힘을 맹신하는 사회주의는, 중앙정부가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다는 전지전능함에 사로잡히는 '치명적 자만'에 빠져있음을 경고하였다(Hayek, 1988). 그가 볼 때 사회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전통을 답습, 인간이성에 대한 무제한 적 신뢰를 보내는 합리적 구성주의(rational constructivism)에 빠진 나머지,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를 간과한 것이다(민경국, 2007). 만약 치명적 자만에 빠진 중앙정부가 정확하지 않는 지식을 토대로 사회의 각 부문에 자원배분을 '강요'한다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 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이를 강제로 낮추는 임대료 통제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사례는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자생적 질서에서 창출된 지식을 무시하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무지한 자의 명령을 강요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 3.2.2 지식을 '발견'하는 시장의 역할

한편 하이에크는 또 다른 논문들에서(e.g. Hayek, 1946, 1968) 시장사회주의자들이 아닌 네오클래식 경제학자들의 균형모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그리고 이 관점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학설 중에서 하이에크 고유의 공헌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과정(market process)' 관점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임일섭, 1999). 우선 하이에크는 "경쟁의 의미"라는 논문을 통해, 네오클래식 완전경쟁 균형모델 안에는 '경쟁'이란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도발적인 지적을 한다.

"필자는 완전경쟁이론에서 논의되는 것이 소위 실질적으로 '경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내용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그 결론이 정책에 대한 지침으로써 거의 유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하이에크, 1946, p. 139; 원저 Hayek, 1946)."

그는 다시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의 주장을 펴 나간다. 그는 네오클래식 완전경쟁모델의 기본 가정들 중, '완벽한 지식' - 즉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타 기업의 기술에 대한 경쟁자의 지식 - 을 가정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서로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기업 간 기술, 품질 등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서 균형(equilibrium)은 달성되겠지만, 더 이상 경쟁할 인센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데 무엇 하러 경쟁하겠는가? 완전한 균형의 의미는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고, 완전한 평등 하에서는 경쟁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완전경쟁 모델

안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므로 경쟁심리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은 경쟁과정이 발생시키려는(혹은 근접시키려는) 상태가 이미 존재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하는 것 같기 때문이며 만약 완전경쟁이론에 의해 가정되는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이론은 ‘경쟁하다’라는 동사가 묘사하는 모든 활동들을 박탈할 것 같고, 또한 그런 활동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 같기 때문이다(하이에크, 1946, pp. 139-140; 원저 Hayek, 1946).”

만약 경쟁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경쟁은 기업 간에 지식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을 때만, 또는 소비자가 어떤 기업이 가장 우수한 기업인지 잘 모를 때에만, 치열하게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경쟁의 강도가 높을 것이다.

“상이한 사람, 혹은 기업들의 서비스는 결코 정확히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분명히 경쟁은 매우 격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봉사 받고 있고 봉사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경쟁 때문일 것이다(하이에크, 1946, p. 145; 원저 Hayek, 1946).”

여기서 격렬한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식을 배우고 모방하거나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어 시장에 알려져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어떤 기업이 새로운 유통경로를 개척했다거나, 혹은 어떤 기업이 훌륭한 기업인지에 대한 지식이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완전경쟁이론은 이런 지식들이 사전에 다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과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완

전경쟁이론이 사전에 가정하는 지식들은 사전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오직 경쟁과정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의 진정한 의미는 지식발견의 과정으로 보아야한다. 정책적으로 보아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완전경쟁의 가정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실제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완전한 시장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들을 정확히 똑같이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아닐 것이며 (하이에크, p. 148)...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어진 상황에서 경쟁이 완전한가에 관해선 덜 걱정해도 된다는 것이며, 어쨌든 경쟁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상당히 많이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인 모형이 은폐하고 있는 것은,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간의 괴리보다는 경쟁과 무경쟁간의 괴리가 실제로 더 크다는 것이다(하이에크, 1946, p. 155-156; 원저 Hayek, 1946).”

경쟁은 경쟁이 없으면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이용되지 못하게 될 사건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므로 하이에크에게 시장의 순기능은 가격기구를 통해 사회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나가는 데에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사회주의 체제에 비해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더 운 좋게 사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와 관련, 독점의 문제를 은연중에 지적하면서 독점의 진정한 폐해는 생산량을 줄이고 높은 가격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경쟁과정이 멈추어져서 더 이상 지식창출이 안 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Hayek, 1946).

하이에크가 지적한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을 다시 사회주의 계산논쟁에 적용시킨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첫째 현장지식이 집약된 가격으로 자원배분을 하지 않기에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둘째, 경쟁과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지식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경쟁과정을 통해 새로이 발견되는 지식을 이용한 새로운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기회가 생기는 데,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하이에크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는 “**자생적 질서가 창출한 좋은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나 정부의 시장개입은 그들의 지식이 시장이 현재 활용할 수 있거나 발견해 나갈 지식보다 더 앞서지 않는 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와 같이 시장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둔 하이에크는, 경쟁은 균형이 아닌 엇치락뒤치락하는 불균형 속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보았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의 경쟁과정, 혹은 시장과정에 대한 하이에크의 이론은 오스트리아 시장관점을 대표하며, 아마도 현실 기업경쟁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한 경제학 이론일 것이다.

### 3.3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주관주의 (Subjectivism)

<표 1>에서 Boettke와 Leeson(2003)은 하이에크를 잇는 다음 세대의 대표적 오스트리아 학자로 커즈너(Kirzner), 로스바드(Rothbard), 그리고 라흐만(Lachmann)을 꼽았다. 이 중 미제스와 하이에크 모두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에 기업가의 역할을 더한 인물이 커즈너(Kirzner)이다. 그는 슈페터

와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가 이론(entrepreneurship theory)을 제시한 학자로서, 미제스로부터는 인간행동에 내재하고 있는 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alertness)이라는 기업가정신을 찾아내고, 하이에크로부터는 개별 주체들에게 흩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시장경쟁과정의 관점을 받아들였다(김이석, 2005).

일찍이 미제스는 인간 행동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Mises, 1949). 만약 인간이 모든 것을 안다면 그는 아무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의지가 빠진 상태에서 알려진 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의지는 꺾일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그려볼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공존할 때만이 인간의 행위가 일어난다는 논리이다. 즉, 미제스는 인간행위라는 개념 속에는 불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상반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뛰어드는 투기적 요소를 기업가 정신의 근간으로 보았다(김이석, 2002). Kirzner는 미제스로부터 이런 투기적 요소의 기업가상을 받아들여, 이를 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alertness)이란 개념으로 계승하였다. Kirzner의 기업가는 불균형 상태에서 하이에크가 지적한 산재한 현장지식들, 또는 이익기회들을 찾아 기민하게 움직이며 시장을 균형 상태로 만들어간다(Kirzner, 1973). 하이에크가 제시한 분산된 지식의 활용도 사실상 기업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기민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기업가가 없으면 지식활용이나 지식발견을 통한 사회발전은 어려운 것이기에 시장과정 관점에서 기업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Kirzner의 기업가 이론은 오스트리아 학파 전통의 주관주의에 토대하였는데, 그는 ‘경제학의 발전은 주관

주의의 보다 철저한 적용과정이었다'는 하이에크의 말을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다 (Kirzner, 1992, 김이석, 2002).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의 주관주의란 가치(value), 기대(expectation), 의도(intent), 그리고 지식(knowledge)이 개인의 인지구조 속에서 주관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Boettke and Leeson, 2003).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관주의는 다른 학파의 주관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선호뿐 아니라 인지(지식)의 문제를 중시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네오클래식 경제학에서처럼 모든 기업들이 같은 이익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Kirzner의 모델에서는 일부 더 기민한(alert) 기업가들만이 개별적 기대와 의도,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불균형 상태에 반응한다.

하지만 Kirzner의 기업가 이론은 급진적 주관주의를 주장하던 그의 동료 Lachmann(1977, 1978)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Lachmann은 기업가마다 기회를 보는 관점이 더 주관적이고 다 다르므로 Kirzner의 주장처럼 시장에서 불균형이 채워져서 균형으로 가지는 않고, 기업가들 간에 서로 상이한 투자를 해가면서 불균형이 계속 진행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 두 학파 간의 논쟁은 Lachmann의 사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미세스-하이에크-커즈너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적 관점에서 현대 경영전략의 제 이론들을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다.

## IV. 경영전략 이론들에의 시사점

### 4.1 사회주의계획과 경영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전장에서 사회주의 계산논쟁의 검토를 통하여 인간 이성의 힘을 맹신하여 합리적 구성주의를 받아들인 사

회주의식 계획경제와 이를 자생적 질서의 관점에서 비판한 하이에크의 논리를 비교하였다. '자생적 질서가 창출하는 좋은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하이에크의 관점은 현대 경영전략에서 큰 이슈였던 정형화된 전략계획수립의 유용성 논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의 전략계획 또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토대로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산재된 모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계획을 할 수 있을까? 기업의 전략수립도 '치명적 자만'에 빠져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는가?

1990년대 전략경영 분야에선 Ansoff와 Mintzberg 간에 전략계획의 유용성에 대해 열띤 공방이 있었다 (Ansoff, 1991; Mintzberg, 1990, 1991, 1994). 그리고 이 논쟁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Slater, Olson, and Hult, 2006; Wiltbank, Dew, Read, and Sarasvathy, 2006). 과거 경영전략분야가 서서히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 Ansoff와 하버드의 Andrews가 제시한 전략경영의 개념은 기업 내 훌륭한 전략수립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좋은 전략이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Ansoff, 1965; Andrews, 1971). 그러나 Mintzberg는 이들의 전략수립이론을 Planning학파(또는 Design학파)로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들을 비판하였다(Mintzberg, 1990, 1991, 1994). 첫째, 전략계획수립과정이 디테일한 분석과 정형화된 절차에 너무 치중하게 된다는 점, 둘째 집계된 계량화된 정보 위주로 전략기획실에서 현장감 없이 의사 결정하는 것, 셋째, 경영자의 주관적 직관 및 비전과 같은 통찰력이 무시된다는 점, 넷째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점이다. Mintzberg의 이런 비판은 공식적 전략계획 기능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모호하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누적되면서 한층 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Pearce, Freeman and Robinson, 1987; Shrader, Taylor and Dalton, 1984).

한편, Mintzberg는 그 대안으로 학습에 의한 전략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Learning School'이라고 이름 붙인 이 학파는 미래란 근본적으로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최대한 학습을 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점차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 전략(i.e., emergent strategy)이라고 정의한다(Mintzberg, 1990, 1994). 즉 진정한 전략은 어떤 정형화된 전략의 수립 없이 기업이 주변의 크고 작은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환경의 불확실한 변화에 따라 점진적(Incremental)으로 적응(adaptation)해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개념에 대해 Ansoff는 Mintzberg의 전략모델이 이미 일어난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규범적(prescriptive)이고 실용적인 전략모델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기업현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Learning학파에게는 사전적 전략계획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장에서 설명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지식이론 관점을 도입하여 Learning과 Planning간의 논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연 어떤 학파가 제시한 전략수립이 사회에서의 지식활용과 지식발견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접근은 포괄적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논리로 기업의 전략 계획이론을 설명한다는 면에서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즉, 하이에크의 지식이론의 핵심이 사회에 가장 많이 공헌하는 방향으로 지식을 활용하자는 것이기에, 이 관점과 일치하는 전략계획수립은 사회적 후생에 가장 공헌이 많은 전략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

우선 Planning학파의 전략수립과정을 분석해 보면, 중앙의 전략기획실에서 모든 지식을 보유하고 중앙통제적 top-down식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수립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활용되는 지식측면으로 보더라도 Planning학파의 전략수립방식은 하이에크가 사회주의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한 소위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에 의거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중앙 전략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집계된 수치를 분석한 근거로 전략수립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스템 하에서 사회의 각 섹터에서 수집된 통계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원배분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 전략기획실에서 모든 지식을 컨트롤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역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치명적 자만'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Planning학파의 전략 계획수립과정은 기존의 과학적(통계적)지식을 기계적으로 활용하는 top-down식 전략수립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특정 시공간 속에서의 지식'(knowledg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이 반영되거나 새로운 지식창출의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인다.

반면 Learning학파는 미래예측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급진적 불확실성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Lachmann, 1977, 1978), 또한 인간의 이성에 의한 계획을 맹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Learning학파의 전략개념에는 조직 내에 분산된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식창출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가? 다시 언급하지만 Learning학파의 전략개념은 중앙집권적으로 형성된 정형화된 전략 없이, 기업이 경영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학

습해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하이에크가 언급한 지식활용과 지식창출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활용측면에서 Learning학과의 전략개념은 분권화된 시스템 하에서 조직안팎으로 산재되어 있는 '특정 시공간 속에서의 지식'(knowledge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ime and place)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에크의 주장과 부합한다. 둘째, 지식창출의 측면에서도 Learning학과의 전략개념은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Learning관점에서의 경영전략의 개념은 오스트리아 학파, 특히 하이에크가 거론한 사회에서의 지식의 활용과 창출과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Mintzberg는 Learning학과의 특징으로 최고경영자의 주관적인 비전의 중요성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는 경영전략은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수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CEO의 주관적인 통찰력과 비전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Mintzberg, 1994). 이는 Learning학파가 주장한 경영전략의 개념이 분권화된 지식에 기반을 둔 것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Learning학파의 이런 상반된 측면은 하이에크의 분산된 지식관점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는 하이에크의 이론과 Kirzner의 기업가 이론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서로 상충되지 않고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이에크의 지식이론은 통제된 사회주의국가와 시장을 비교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보다는 분권화된 시장에서 분산된 유용한 지식들이 더 잘 활용되어지고 창출되어 진다고 하였을 때, 여기서 분산된 유용한 지식을 가진 주체는 기업가인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서 Kirzner(1973)는 하이에크가 말한 현장지식을

국가의 관료들보다는 기민한(alert) 기업가들이 더 잘 활용하고 발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은 바로 기민한 기업가들인 것이다. 기업가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익에 대한 주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물론 여기서 오스트리아학파 특유의 주관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서 비전이란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기업가의 기민성에 의해 알게 된, 특정 시공간 속에서의 지식에 근거한 일종의 계획이다. 즉, 기업가의 비전도 분산된 현장지식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시장에서 분산된 현장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기업가의 주관적 비전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란 결국 기업과 기업가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가들의 이익에 대한 사적인 비전은 국가 전체차원에서는 분권화된 지식이지만, 기업차원에서는 중앙집권자의 지식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분권화된 시장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지식이 잘 활용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과 기업가가 기민한 통찰력에 기반을 둔 지식을 가졌기에 이런 기업가정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Kirzner의 주장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즉, 하이에크-커즈너를 종합하여 기업내부의 전략수립 문제를 정리해 보면, 기업의 전략수립 시에는 조직 내 분권화되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기민성에 기인한 중앙집권적 비전도 같이 반영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오스트리아 지식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전략수립이란 조직내외의 지식활용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조직 내 분권화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현장지식을 최대한 활용, 발견하는 것과 함께 위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기민한 통찰력에 근거한 비전을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최고경영자의 지식도 중요하고 조직하부에 분

산된 지식도 중요하다면, 기업은 과연 누구의 지식에 더 의존해야 하는가?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기업의 경우, 이 회사의 전략수립에 핵심적인 지식은 창업자나 최고경영팀에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의 경우, 창업자가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회주의 중앙독재 식의 경영전략수립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업자의 현장지식을 통한 이익 추구 비전이 회사 창업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수많은 일반인의 지혜보다 한 명의 천재의 머리를 널리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슈페터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Schumpeter, 1942). 이런 식의 전략계획이 조직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오히려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리더의 지식이 자신보다 훌륭한 경우, 우리는 자발적으로 리더의 비전을 따르기 때문이다(Conner and Prahalad, 1996).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그 리더의 비전에 따르기로 하고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반면 창업한지 오래되어 거대화된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전략수립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지식들이 현장 관리자들과 주관적 판단과 암묵적 지식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최고경영층의 이익에 대한 비전은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즉, 기업가의 비전과 현장지식 간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조직 내에 분산된 지식들을 계량화된 수치로 집계한 후 이를 근거로 최고경영층에서 전략수립을 한다면 중요한 현장지식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즉, 크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중앙집권적 전략수립을 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거대조직의 Top-Down식 전략수립은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열등한 지식이 지배를 할 확률이 높으므로 조직원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잘못된 지식과 속박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롭지 못하

다. 예를 들어 전공학파가 많은 커다란 대학조직을 생각해 보자. 만약 학교 본부가 구성원의 참여 없이 중앙집권적이고 독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모든 학과에 똑같이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학과평가를 한다면, 이는 사회주의와 흡사한 문제를 일으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자유를 크게 억압될 것이다. 또한 만약 공대출신의 총장이 있어 개인적 정의감과 공학적인 비전에 사로잡혀 경영경제학과의 발전전략과 교수평가를 공대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보자. 이 또한 잘못된 지식에 의해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유의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비전을 반영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오래되고 큰 기업일수록 보다 분산된 지식을 반영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Learning학파에서 제시하는 전략개념이 하이에크의 지식이론과 많은 유사성을 가졌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Ansoff(1991)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Learning 학파에서는 전략계획수립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범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에크의 지식론에 근거한 전략수립도 자칫하면 “전략수립시에는 조직 위, 아래 퍼져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하라”라는 토탈로지(tautology)적 주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하지만 Jensen과 Meckling(1992)이 지적했듯, 지식에 관한 하이에크의 가장 훌륭한 통찰력은 “**지식과 의사결정 권한이 같은 위치에 공존**”(colocation of knowledge and decision authority) 할 때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간파한 점이다. 하이에크가 국가차원의 자원배분이 정부보다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는, 시장가격에 담긴 지식이 정부 관료가 가진 지식보다 우월하기에 그 시장가격에 의한



의사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였지,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교조주의적 주장을 편 것은 아니었다. 만약 정부가 문제해결에 더 훌륭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 의사결정권을 정부가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하이에크는 무조건적으로 분권화를 옹호하고 집권화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보다 훌륭한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지식과 의사결정권한이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통찰력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특히 분권화의 경우)의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 대리인 이론이다(Jensen and Meckling, 1976). 대리인 문제는 정보 비대칭을 가정하는데 이는 Principal과 Agent간에 이미 지식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전략수립에서는(특히 분권화를 선택할 경우), 지식과 의사결정권이 공존함으로써 얻는 효율성과 함께, 대리인 문제로 인한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 문제의 경우, 이미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여기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현 연구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는 지식과 의사결정권의 공존 문제에 관해서만 강조를 하고자 한다. 특히 Jensen과 Meckling(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리인문제에 비해, 대리인 문제의 전제가 되는 지식과 의사결정권이 공존해야 하는 문제(특히 의사결정권을 해당지식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현재까지도 문헌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 문제는 조직학에서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거시조직학에서 분권화(decentralization)관련 문헌검토를 해보면 분권화의 원인을 지식문제로 접근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분권화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상황이론에 근거한 Blau and

Schoenherr(1971)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조직의 크기(size)가 커질수록 분권화가 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도 위에서 든 예에서 조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분산된 지식활용을 위한 분권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Blau and Schoenherr(1971)의 논리는 조직이 커질수록 최고경영자들이 직면한 조직 내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지식의 중요성 때문에 분권화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아래와 같이 분권화를 하면 더욱 열등한 지식에 지배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Decentralization inevitably increases the variability of managerial decisions and thus the chances that some administrative decisions rest on poor judgment, since not all middle managers can be expected to be equally good administrators... The implication of this interpretation is that other conditions that make operations more reliable also foster decentralization(Blau and Schoenherr, 1971).”

또 다른 분권화 관련연구로 볼 수 있는 M-form에 관한 연구도 분권화의 주요 이유를 외부 자본시장실패에 따른 자본시장의 내부화의 효율성으로 보고 있어(Williamson, 1975; Hill, 1985), 현장지식활용을 위한 분권화의 동인과는 거리가 멀다. 지식경영 문헌을 보더라도, 조직의 암묵적 지식을 조직 내 전파하는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는데(e.g. Nonaka and Takeuchi, 1995), 이는 분산된 지식이나 암묵지가 존재하는 곳으로 의사결정권을 이전시키는 분권화의 문제와는 정반대의 연구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이미 언급한 Learning학과(eg.

Mintzberg, 1990, 1991, 1994)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일부 전략수립 및 전략적 의사결정 관련 연구들 (eg. Andersen, 2004; Floyd and Wooldridge, 1997, Burgelman, 1988)의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분산된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분권화와 그 이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보다 미시적 관점의 ‘종업원의 참여형 의사결정’(employee’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관련 연구들에서도(Miller and Monge, 1986), 지식(능력)이 있는 종업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성과가 좋아진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두 연구 흐름 모두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분권화해야 한다는 보다 확고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하이에크의 지식관점은 이런 일련의 연구들에 든든한 이론적 배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경영전략 분야뿐만 아니라 조직학 일반에서도 대리인 비용을 통제할 상태에서 유용한 지식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 내 유용한 지식들이 최대한 활용되어 구성원들의 자유와 조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해보았다.

## 4.2 Porter 진입장벽이론의 오류과 자원기반이론 비판

### 4.2.1 포터이론의 문제점

포터이론은 그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기존의 비판들과 오스트리아 관점에서의 비판을 제기하도록 하겠다. 우선 포터의 모델은 Bain(1956)과 Mason(1939)의 전통을 잇는 하버드 산업조직경제학과의 S-C-P 모델을 단

지 거꾸로 뒤집어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종종 지적된다(Barney, 2006; Reed and DeFillippi, 1990). 따라서 포터의 5 Forces 모델은 일찍이 시카고 산업조직경제학파가 지적한(i.e. Stigler, 1968; Demsetz, 1973) 하버드식 S-C-P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특히 Demsetz(1973)는 산업구조(structure)가 성과(performance)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P)가 산업구조(S)를 만든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업의 높은 성과를 S-C-P논리인 독점지대(monopoly rent)로 해석하는 것보다, 기업의 효율적 활동에 의한 효율성 지대(efficiency rent)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즉,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독점가격을(monopoly) 책정했기 때문에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열심히 효율적(efficient)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보다 친기업적인 시카고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논리는, 기업의 성과는 효율적 내부자원의 보유에 기인한다는 자원기반이론이 형성되는 데 일조하였다(Barney, 1991).

포터이론은 특히 자원기반이론 학자들에 의해 특히 많이 비판 받았는데, 예를 들어 Rumelt(1988)는 포터의 전략이론은 다름 아닌, “기업이 전략적으로 세워진 진입장벽 뒤에 숨어서 서로 담합하여 돈을 버는 것”이라고 표현했다(Jacobson, 1992). 이 문구는 하버드학파의 S-C-P를 답습한 포터이론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요약했고, 그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본다. 또한 포터는 산업내의 수익률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략그룹과 이동장벽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제시한 바 있다(Caves and Porter, 1977).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진입장벽을 이동장벽으로 대체한 것이며 여전히 기업의 성과를 공통된 장벽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설명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자원기반이론은 자원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비이동성(immobility)을 기본 골격으로 하며 포터 이론을 비판하였다. 아마도 자원기반이론 학자들 중 Barney(1991) 만큼 포터를 많이 압박한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포터가 동일 산업 내(또는 전략그룹 내) 기업들을 동질적으로 보고 이들이 공통의 진입장벽이나 이동장벽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수익률이 같을 것이라고 한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Rumelt(1988)의 지적처럼 포터의 전략은 기업에게 진입장벽 또는 이동장벽을 세워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을 억제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Hill and Deeds(1996)의 경우, 신 오스트리아적 관점에서 포터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포터모델이 균형관점을 채택한 점, 둘째 Demsetz(1973)의 주장과 같이 산업구조가 성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적 성과들이 모여 산업구조가 결정되었다는 시각을 간과한 점, 셋째, 동일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은 동일하다는 S-C-P 모델의 가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 넷째,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받는 산업집중도가 높은 동질적 기업들간엔 암묵적 담합이 이루어져서 경쟁을 자제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 Hill and Deeds(1996)의 경우, 대부분의 비판이 자원의 이질성과 routine의 개념(Nelson & Winter, 1982)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오스트리아적 관점이라기 보다는 자원기반이론이나 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포터를 비판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관점과 자원기반이론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Jacobson, 1992).

한편 포터는 자신 이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자신의 과거 논문을 약간 보완, 수정하여 발표했으나, 전체적인 논점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Porter, 2008). 포터이론의 핵심인, 산업 또는 전략그

룹이 장벽(진입장벽 또는 이동장벽)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주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2.2 진입장벽과 이동장벽 비판: 자원기반이론의 자원장벽론

포터이론과 관련하여, 산업 또는 전략그룹의 모든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입장벽 또는 이동장벽(Caves and Porter, 1977)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자원기반이론 학자들은 진입장벽보다는 자원장벽(resource barrier) (Collis and Montgomery, 1995)이란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Barney(1991)의 경우, Porter의 이론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Thus, barriers to entry and mobility only exist when competing firms are heterogeneous in terms of the strategically relevant resources they control... Again, it is not being suggested that entry or mobility barriers do not exist. However, it is being suggested that these barriers only become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when firm resources are not homogeneously distributed across competing firms and when these resources are not perfectly mobile(Barney, 1991, p.105, 밑줄은 필자에 의해 강조됨).”

이처럼 Barney(1991)는 자원의 이질성(resource heterogeneity)을 옹호하는 근거로 진입장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행히도 자원기반이론의 기본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즉, 자원기반학자들 간에도 진입장벽의 개념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인정하는 등 혼

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Collis와 Montgomery(1995)는 진입장벽이란 개념대신 자원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자원장벽(resource barrier)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ntry barriers are really resource barriers: The reason competitors find it so hard to enter the business is that accumulating the necessary resources is difficult. If it could be done easily, competitors would flock to the opportunity, driving down average returns(Collis and Montgomery, 1995, 밑줄은 필자에 의해 강조됨).”

진입장벽이 산업차원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원장벽은 개별기업차원의 개념일 것이다. 결국 자원장벽의 본질은 타 경쟁기업이 모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건을 뜻한다. 모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야 말로 바로 자원장벽의 핵심이다. 자원기반이론에서는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는 자원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Barney, 1991): 1) 인과관계 불분명성(causal ambiguity) (Lippmann and Rumelt, 1982; Reed and DeFillippi, 1990), 2)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생성되는 자원(social complexity) (Barney, 1986a), 3)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생성된 자원(history) (Dierickx and Cool, 1989; Arthur, 1989). 이 세 가지 조건들은 모두 경쟁자의 모방을 훌륭히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다. 하지만, 이런 모방 불가능한 자원들 - 즉, 자원장벽 - 이 ‘어떻게 축적(accumulate)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 기존 문헌은 그리 만족스러운 대답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첫째 유형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자원이란 그 정의상 경쟁자나 당사자 자신도 어떻게 자원이 축적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Lippman and Rumelt, 1982). 둘째,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형성

된 자원 - 대표적 예로 조직문화 - 의 경우는 내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원이 축적되는데, 그 복잡성으로 인해 모방도 어렵지만 자원형성 과정의 파악도 어렵다(Barney, 1986a). 세 번째, 오랜 역사 속에서 창출된 자원은 단지 시간의 흐름에 의존하는 경우 (Dierickx and Cool, 1989)와 우연한 사건에 의존하는 경우(Katz and Shapiro, 1985; Arthur, 1989)인데, 이들은 극히 수동적인 자원축적과정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문헌에서 대표적으로 자원축적 과정을 설명한 Dierickx와 Cool(1989)의 ‘time compression diseconomy’란 개념은 모방불가능한 자원의 축적에 대한 설명을 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만 의존하였다.

“For example, MBA students may not accumulate the same stock of knowledge in a one-year program as in a two-year program, even if all inputs other than time are doubled. In the case of R&D, the presence of time compression diseconomies implies that maintaining a given rate of R&D spending over a particular time interval produces a larger increment to the stock of R&D know-how than maintaining twice this rate of R&D spending over half the time interval(Dierickx and Cool, 1989, p. 1507).”

즉, 현재 기존 자원기반이론에서 아쉬운 점은 자원 축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원축적과정에서 외부 경쟁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즉, 핵심역량의 창출에 시장경쟁과정의 역할이 빠져있는 것이다. 물론 모방이 불가능한 자원을 내부 축적과정이 아닌 전략적 자원시장(strategic factor market)에서의 ‘자원획득’(resource picking)을 통해

서 달성할 수도 있다(Makadok, 2001). 그리고 물론 자원획득과정에는 경쟁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다(Barney, 1986b, Makadok and Barney, 2001). 하지만 모방이 어려운 자원을 갖는 데에는 자원획득뿐만 아니라 자원축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자원축적의 과정에 경쟁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이론적 공백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공백을 아래에서 오스트리아 경쟁과정의 관점을 도입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 4.2.3 오스트리아 주관주의와 시장경쟁과정 관점을 활용한 자원장벽의 논리

이제 오스트리아적 시장경쟁에 의해 기업 내부에 자원축적이 되어 자원장벽이 형성될 수 있는 점을 보이고 이런 자원장벽의 개념이 포터의 진입장벽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맨 처음에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돌아가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처음에 기민한 기업가들은 시장을 감지하여 수익 기회를 발견하고 사업에 뛰어들다(Kirzner, 1992). 물론 진입자들의 진입시점이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모두 조금씩 다를 것이다. 또한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수준과 종류도 모두 상이할 것이다. 이렇게 초기 자원분포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것은 자원기반이론의 가정과 같이 그리 비현실적 가정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물론 선발자의 우위 같은 요소도 기업 간의 이질적 자원으로 취급하여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수많은 경쟁자들이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자신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고 특별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쟁그룹이 존재할 수 있다. 굳이 오스트리아 주관주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최근 전략그룹의 연구들이 경쟁자의 파악 시 경영자의 인지구조 또는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에

서도 잘 나타난다(Peteraf and Shanley, 1997; Porac and Thomas, 1990; Reger and Huff, 1993). 하지만 이 경쟁그룹은 기존의 전략그룹문헌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어떤 공통의 이동장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경영자의 주관 또는 인지구조 속에 경쟁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이다.

이제부터 하이에크의 불균형 시장경쟁과정을 고려할 시점이다. 경쟁그룹에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경쟁 기업 간 이질성 또는 불균형이다. 왜냐하면 불균형은 경쟁심을 초래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Hayek, 1946). 불균형 상태에서 경쟁열위에 있는 기업은 자원을 투자하여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불균형이 계속 창출될 것이다. 이런 불균형 경쟁의 가정은 기업동질성과 균형을 가정하는 네오클래식 경제학과는 확연히 다르고 자원기반이론의 경쟁과정과도 다르다. 자원기반이론의 경우, 자원이질성을 가정하지만 동시에 균형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쉽게 이야기 한다면, 우수한 자원을 보유해서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의 지위가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이나 기업들에게 기업이 전략을 통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으로 매우 유용한 가정이 라고 보겠다. 경쟁우위의 불균형적 지속을 위해 자원기반이론에서는 인과관계 불분명성, 사회적 복잡성, 역사적 성격을 지니는 자원의 조건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철통같은 조건은 경쟁열위에 있는 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업을 모방하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자원기반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상대기업에 대한 모방을 시도한다. 모든 1등 기업의 역량이 모방불가능성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에, 모방의 결과, 간혹 모방이 성공할 수도 있다. 물론 모방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선두기업의 역

량과 엇비슷한 자원 축적의 흔적은 내부에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1위 기업의 경쟁우위가 모방불가능성의 조건을 갖추더라도, 1위 기업의 위치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첫째, 열등기업에 의한 슈페터적 혁신의 가능성(Schumpeter, 1942)과, 둘째, 1위 기업의 핵심자원의 가치(value)를 변화시키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Priem and Butler, 2001). 물론 두 번째 위협에 대응하여,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 있는 역량을 계속 창출해 내는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y)이란 개념도 존재하지만(Teece, Pisano, and Shuen, 1997), 과연 현실적으로 이런 만능역량을 지닌 기업이 몇이나 될지는 회의적이다. 1위 기업이 이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 순위가 떨어졌을 때, 그 기업은 다시 모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선두기업을 추격할 것이다. 일부 기업이 1위 자리에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를 수는 있지만, 영구히 1위를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경쟁자간 엇치락뒤치락하는 번복과정은 끊임없는 불균형을 창출할 것이다(Barnett and Hansen, 1996; D'Aveni, 1994). 선발자의 우위와 같은 속성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Golder and Tellis, 1993; Geroski and Markides, 2005).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고 다행히도 경쟁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호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모방과 혁신을 통해 모두 높은 수준의 자원 혹은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경쟁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지식이 창출되는데 이들은 유형자원과 융합되어 전체적인 자원축적에 기여한다. 이들은 슈페터적 혁신지식, 하이에크의 현장지식, 그리고 Polanyi식의 암묵지이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경쟁과정을 통해 형성된 모방이 어려운 자원장벽의 개념이다. 이 자원장벽은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 항상 혁신에 의하거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이 자원장벽은

개별적, 주관적 판단 하에 형성되어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다르다. 즉, 1등 기업과 2등 기업의 자원축적 정도가 다르고, 모방의 어려움도 다를 것이다. 불행히도 기존 자원기반이론에서는 이런 경쟁과정을 통한 핵심역량축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또한 모방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열등한 경쟁자들이 벤치마킹 또는 혁신을 통해 같이 자원을 같이 축적해 간다는 사실에 주의를 두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자원기반이론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신규기업이 이런 자원장벽을 가진 기존 기업들에게 도전하려 한다면 당연히 누적된 유형 및 무형의 역량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공통적인 진입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통적이라는 느낌은 경쟁자 상호간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경쟁기업간의 유형자원 기반을 다소 비슷하게 만들었기에 드는 것이다. 무형자원인 개별지식의 융합까지 고려하면 모두 제각기 다른 장벽들이다. 즉, 경쟁과정 속에서 기업 각각의 사적인 판단에 의해 축적된 개별적 자원장벽인 것이다. 과연 어떤 기업이 개인적 주관적 판단과 목적이 아닌, 경쟁자들과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원을 투자하겠는가? 대부분의 경우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호막은 사적인 장벽이지, 공공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 장벽은 자연스러운 경쟁의 결과를 통해 획득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정당하다. 사실 '장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보다 고객을 위해 축적해온 '역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고객을 위해 축적한 것이지, 경쟁자를 억지로 진입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신규기업이 진입 시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는 이런 정당한 자원장벽 이외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다소 예외적인 현상들로 여기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네트워크 외부성이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생기는 시장 쏠림현상이나, 고착화(Lock-in)의

경우이다(Katz and Shapiro, 1985; Arthur, 1989). 이것은 기존 기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역량에 비해 높은 시장지배력을 오래 가지게 할 수 있는 예외적 현상들로 경쟁의 순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들로 볼 수 있으며, 관련된 변수가 많아 개인적인 기업의 의도적으로 진입장벽으로 쌓기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둘째, 기존 기업들이 상호협의를 통해 담합을 해서 신규경쟁자의 경쟁의지를 꺾는 경우이다. 셋째, 기존 기업이 고의로 신규경쟁자의 경쟁의지를 꺾기 위해 필요이상의 과잉투자로 협박을 하거나 더 심한 경우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문자 그대로 나쁜 의미의 진입장벽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진입장벽 중, 포터 입장에서 기업에게 유용한 전략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Porter(2008)가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 - 규모의 경제, 높은 자본투자액, 기업크기와 관계없는 기존 기업의 장점(기술, 브랜드, 희귀자원의 확보, 좋은 지리적 입지, 경험 곡선) - 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자원장벽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경쟁의 과정에서 축적된 자원이자 고의로 신규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Porter 전략이론의 핵심중의 하나가 바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진입장벽 또는 이동장벽을 높여 신규진입자의 위협을 무마해야 된다는 메시지이다.

“To scare off entrants, incumbents can elevate the fixed cost of competing - for instance, by escalating their R&D or marketing expenditures(Porter, 2008).”

기업이 위의 전략에 따라서 R&D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 그것은 진입자를 의식해서 진입장벽에 투자하는 것인가 혹은 소비자를 의식해서 개별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위의 행위가 개별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Porter는 이것을 경쟁을 막는 진입장벽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았다. 혹자는 Porter가 이런 유형의 투자를 개인적인 진입장벽을 쌓도록 권고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아래의 주장에서와 같이, 이런 투자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진입장벽에 기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Industry leaders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industry structure. Doing so often requires resources that only large players possess. Moreover, an improved industry structure is a public good because it benefits every firm in the industry, not just the company that initiated the improvement(Porter, 2008, 밑줄은 필자에 의해 강조됨).”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논리적 오류는 Porter가 시장경쟁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 속에 주관적으로 축적되는 자원의 사적인 속성에 대해 간과했기 때문이다. 어떤 개별기업이 10억 원을 R&D에 투자한 것은 경쟁자에 비해 자신의 기술력을 높여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자연스런 경쟁의 행위이며,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행위이다. 그러나 포터는 같은 행위를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경쟁을 억제시키는 요소로 보았다. 포터의 전략이론은 정당한 기업의 투자활동을 마치 경쟁을 저해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이는 경영학 교육측면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기업의 정

상적 전략실행과 경쟁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진입장벽을 경쟁과정을 통한 개별적 역량의 축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진입장벽에 대해 새로이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자원 또는 핵심역량이란 것은 소비자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경쟁과 진화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진입장벽'이라고 표현하고 일종의 사회악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경쟁실패의 경우도 물론 존재하나, 일부 예외적 상황에 불과하다. 진입장벽이란 용어의 모호성은 최근 선도적인 산업조직 경제학자들 간에도 골치 아픈 논란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Carlton, 2004; McAfee, Mialon, and Williams, 2004; Schmalensee, 2004). 예를 들어 Carlton(2004)은 진입장벽(entry barrier)란 용어 자체가 경제현상의 이해에 걸림돌(barrier to understanding)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잘못된 언어적 선택에서 오는 혼돈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그 원인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선택의 뒤편에 존재하는 개념상의 오류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제 자원장벽의 개념에 근거하여 포터의 전략그룹과 이동장벽에 관한 논리를 비판해보고자 한다. 전략그룹과 이동장벽 이론은 SCP논리를 산업보다 한 단계 낮은 전략그룹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논의한 자원장벽은 모두 개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상호 주관적으로 인식된 경쟁자 그룹 내에는 서로 모방과 벤치마킹을 통해,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자원들이 축적될 수 있다. 이들을 비슷한 자원전략을 구사하는 전략그룹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자원의 축적으로 형성된 전략그룹개념은 초기 전략그룹 문헌(Caves

and Porter, 1977; Porter, 1980)에서 제시한 전략그룹의 기본 개념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초기의 전략그룹이론의 특징은 SCP의 영향을 받아 이동장벽을 우선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동장벽 내에 있는 기업들은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내부적으로 암묵적 담합을 도모하여 높은 성과를 올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전략그룹의 초기 이론에 대해 Barney와 Hoskisson(1990)은 그 어떤 임의적 데이터를 가지고도 전략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략그룹연구의 이론적 취약성을 비판한 바 있다.

물론 초기의 전략그룹이론도 위에서 언급한 자원장벽 형성과정과 같이 이동장벽 내 기업 간에 전략의 모방과 벤치마킹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하지만, 일단 모방을 통해 전략이 유사해지면 그룹 내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고, 그 결과 암묵적 담합으로 흐른다고 보았다(Porter, 1980). 그리고 이런 논리는 자연히 그룹 내 경쟁보다는 그룹 간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Caves and Porter, 1977; Peteraf, 1993).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기한 자원장벽 형성의 관점은 과거 전략그룹이론과 다음의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원형성과정에서 보였듯, 자원장벽의 관점은 그룹간의 경쟁보다는 그룹 내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본다. 둘째, 자원장벽은 공공재가 아니라 개별기업법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속성이 각기 다르다. 셋째, 자원장벽 관점은 장벽을 먼저 가정하고 경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장벽이 축적된다는 동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최근의 전략그룹문헌을 검토해 보면, 초기 Caves와 Porter(1977)와 Porter(1980)가 제시한 전략그룹이론에서 점차 탈피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강도와 관련해서, 그룹 내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주장들과(e.g. Smith, Grimm, Young, and Wall,



1997; Peteraf and Shanley, 1997; Fiegenbaum and Thomas, 1995), 전략그룹내의 기업들이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서로 성과가 다르다는 주장들(e.g. Wayne and Grewal, 2008; McNamara, Deephouse, and Luce, 2003; Cool and Schendel, 1988), 그룹 내 담합이 없이도 그룹간 성과차이가 있다고 하는 주장들(e.g. Nair and Kotha, 2001; Hatten and Hatten, 1987; McGee and Thomas, 1986)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연구는 자원을 근거로 전략그룹을 구분하거나(Mehra, 1996), 진화적 과정을 토대로 전략그룹의 형성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Lee, Lee, and Rho, 2002). 이런 사실들은 전략그룹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 점차 본 논문과 오스트리아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시장경쟁의 실제적 모습을 점차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신 전략그룹연구들의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SCP의 큰 틀 속에 자원기반적 관점, 혹은 진화이론적 관점 등의 일부를 결합시킴으로써 논리가 뒤섞여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최근 이론들이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자원장벽이론의 세 번째 특징, 즉 장벽의 개념이 경쟁에 의해서, 그리고 자원의 축적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불균형 속의 경쟁이라는 오스트리아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장벽 그 자체가 경쟁에 의해 형성되었고, 개별 기업별로 장벽의 수준이 달라서 성과도 다를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자원장벽이론을 제시하여 포터이론의 문제점을 새롭게 지적하고, 기존의 자원기반이론을 보완하였다.

## 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경쟁의 전개에 대해, 그리고 기업과 기업가의 활동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불균형, 인간의 무지에 대한 경종, 정적인 분석이 아니라 시간을 중요시 하는 동적인 분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가까이 근접해서 보는 주관적인 시각, 수익기회에 민감한 기업가에 대한 묘사 등이 그것이다. 최근 경영학의 추세를 보면 전통 네오클래식의 가정에서 이탈한 소위 비주류 경제학을 경영학에 적용하는 것이 큰 흐름인 것 같다. 그 중 아마도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진화경제학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오스트리아 관점도 추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오스트리아적 관점은 진화경제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진화경제학의 경우 불균형에 대한 가정과 동적인 진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시장과정과 그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진화경제학은 지식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otts, 2007). 또한 Nelson(1995)은 하이에크의 폭넓은 진화론적 관점은 인정하지만, 그의 관점에 사회를 반영으로 이끄는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하고 있어, 상호 긴장의 요소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잡계 이론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Beinhocker(2006)는 복잡계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을 주장하면서 불균형을 가정하는 복잡계 경제학은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공통점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사실 하이에크 자신도 그의 논문 'Theory of Complex Phenomena'(Hayek, 1961)를 통해 복잡한 계를 자생적 질서의 일환으로 보고, 복잡계가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경제학은 무엇보다 향후 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그 가능성을 경영전략에의 적용을 통하여 보여주려 했다. 특히 전략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구성주의를 경계하고 자생적 질서를 중시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시장과정 관점은 경영전략 이론의 양대 축인 포터이론과 자원기반이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시장과정관점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포터의 진입장벽(또는 이동장벽) 개념은 애당초 경쟁과 경쟁력의 근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원기반이론도 핵심역량의 형성에 경쟁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경영전략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적용 가능한 경영학 분야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하이에크의 지식론은 이미 지식경영 분야에 자주 인용이 되고 있지만, 최근 지식관점에서 새로운 기업이론들이 나오는 추세를 고려할 때(eg. Nickerson and Zenger, 2004; Spender, 1996, Conner and Prahalad, 1996; Kogut and Zander, 1992), 기업이론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인지하고 오스트리아 관점에서 기업이론을 제시하고는 있으나(e.g. Lewin and Phelan, 2000, Ioannides, 1999), 아직 경영학분야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듯하다. 기업이 정신과 관련해서는 최근 Shane(2000)이 오스트리아 관점을 반영하였는데, 슈페터와 커즈너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기업이 정신의 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학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슈페터와 커즈

너의 균형에 대한 가정과 그 속의 기업이 역할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이다. 슈페터의 경우 균형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혁신형 기업가를 묘사했던 반면(Schumpeter, 1942), 커즈너는 불균형을 가정하고 그 속에서 중개이익 추구형 기업가가 등장함에 따라 경제가 균형 쪽으로 접근해가는 것으로 생각했다(Kirzner, 1973). 기업과 정신과 관련해서 앞으로 두 이론의 맥을 잇는 오스트리아 전통의 많은 흥미로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는 Hunt(1997)의 Resource-Advantage Theory와 Dickson(1992)의 Competitive Rationality Theory가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주요 가정들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Dickson(1992)의 경우, 불균형의 개념을 받아들이며, 오스트리아 경제학과 마케팅과의 유사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원조인 맹거가 주장한 주관주의의 기본적 입장이 제품의 가치가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태생부터 마케팅 지향적 관점을 지녔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확산시키는 데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감상적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반시장적, 반기업적 사고를 사회정의로 오해하는 지적 풍토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자칫 적대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체스-하이에크의 지적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 사상은 비판적 논쟁과 역경을 뚫고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태어났다. 인간을 자유와 번영으로 이끄는 사상 역시 경쟁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강화되고, 한층 단련될 수 있을 것이다.

## ■ References

- 권혁철, 김이석, 박종찬, 이춘근, 주용식, 하상욱(2004), *(자유주의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 서울, 월간조선사.
- 김이석 (2002), “커즈너의 세계: 이윤동기가 불붙이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과정”, *에머지* 2000, 12월호
- 김이석 (2005), “의도와 인지적 한계를 지닌 인간의 경제학: 신(新)오스트리아 학파”, 박만섭(편),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신고전파에 대한 12대안), 서울, 이슈투데이, 193-217.
- 민경국 (2007), *하이에크, 자유의 길*, 파주: 한울.
- 임일섭 (1999), *행동규칙과 자생적시장질서*, 서울, 자유기업센터.
-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A. (1945), “사회에서 지식의 용도”, 하이에크(저),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117-135.
-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A. (1946), “경쟁의 의미”, 하이에크(저),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137-157.
- Andersen, T. J. (2004), “Integrating decentralized strategy making and strategic planning processes in dynamic environment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1, 8, 1271-1299.
- Andrews, K. R. (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IL: Irwin.
- Ansoff, H. I. (1965), *Corporate Strategy*, New York: McGraw-Hill.
- Ansoff, H. I. (1991), “Critique of Henry Mintzberg’s ‘The Design School: Reconsidering the basic premises of strategic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6, 449-461.
- Arthur, W. B. (1989),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Economic Journal*, 99, 116-131.
- Bain, J. (1956), *Barriers to New Competi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Barnett, W. P. and M. T. Hansen (1996), “The red queen in organization evolu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139-157.
- Barney J. B. (1986a), “Organizational culture: Can it be a source of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656-665.
- Barney, J. B. (1986b), Strategic factor markets: Expectations,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42, 1231-1241.
-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 99-120.
- Barney, J. B. (2006), *Gaining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Prentice Hall, 3rd edition.
- Barney, J. B and R. E. Hoskisson (1990), Strategic groups: Untested assertions and research proposals. *Management and Decision Economics*, 11, 187-198.

- Beinhocker, E. (2006), *The Origin of Wealth: Evolution, Complexity, and the Radical Remaking of Economics*,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Blau, P. M. and R. Schoenherr (1971), *The Structure of Organiz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ettke, Peter J. and Peter T. Leeson (2003),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1950-2000," in W. J. Samuels, J. E. Biddle, and J. B. Davis (Eds.), *A Companion to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Blackwell, MA.
- Burgelman, R. A. (1988), "Strategy making as a social learning process: the case of internal corporate venturing," *Interfaces*, 18, 74-85.
- Burns, T. and G. M. Stalker (1961),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London: Tavistock.
- Caldwell, B. J. (1988), "Hayek's transforma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9, 2, 327-359.
- Carlton, Dennis W. (2004), "Why barriers to entry are barriers to understand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4, 2, 466-470.
- Caves, R. E. and M. E. Porter (1977), "From entry barriers to mobility barriers: Conjectural decisions and contrived deterrence to new competito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1, 241-262.
-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386-405.
- Collis, D. J. and C. A. Montgomery (1995), "Competing on resources: Strategy in 1990s," *Harvard Business Review*, 73, 4, 118-128.
- Connell, Carol M. (2007), "Fritz Machlup's methodology and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0, 300-312.
- Conner, K. R. and C. K. Prahalad (1996), A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Knowledge versus opportunism, *Organization Science*, 7, 5, 477-501.
- Cool K. and D. Schendel (1988), "Performance differences among strategic group member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9, 3, 207-223.
- D'Aveni, R. A. (1994), *Hypercompetition: Managing the Dynamics of Strategic Maneuvering*, New York, Free Press.
- Demsetz, H. (1973), "Industry structure, market rivalry,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6, 1-9.
- Dickson, P. R. (1992),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mpetitive rationality," *Journal of Marketing*, 56, 1, 69-83.
- Dierickx, I. and K. Cool (1989), "Asset stock accum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mpetitive advantage," *Management Science*, 35, 1504-1511.
- Fiegenbaum A. and H. Thomas (1995), "Strategic groups as reference groups: theory, modeling and empirical examination of industry and competitive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 6, 461-476.

- Floyd, S. W. and B. Wooldridge (1997), "Middle management's strategic influ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4, 465-485.
- Foss, Nicolai J. (1998), "Austrian Insights and the Theory of the Firm," *Advances in Austrian Economics*, 4, 175-198.
- Geroski, P. and C. Markides (2005), *Fast second: How smart companies bypass radical innovation to enter and dominate new markets*, San Francisco: Jossey-Bass.
- Golder, P. N. and G. J. Tellis (1993), "Pioneer advantage: Marketing logic or marketing legend?,"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 2, 158 - 170.
- Hannan, M.T. and J. Freeman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5, 929-964.
- Hatten, K. J. and M. L. Hatten (1987), "Strategic groups, asymmetric mobility barriers, and contestabil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8, 4, 329 - 342.
- Hayek, Friedrich A. (1937), "Economics and knowledge," *Economica*, 3, 33-54.
- Hayek, Friedrich A. (1944), *The Road to Serf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ek, Friedrich A. (1945),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 519-530.
- Hayek, Friedrich A. (1946), "The meaning of competition," reprinted in F. A.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48, 92-106.
- Hayek, Friedrich A. (1948),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ayek, Friedrich A. (1960),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ayek, Friedrich A. (1961), "The theory of complex phenomena," in F. A. Hayek,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Hayek, Friedrich A. (1967), "The Results of Human Action but Not of Human Design," in F. A. Hayek,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6-105.
- Hayek, Friedrich A. (1968),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reprinted in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79-90.
- Hayek, Friedrich A. (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ill, C. R. W. (1985), "Oliver Williamson and the M-form firm: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Issues*, 14, 3, 731-751.
- Hill, C. R. W. and D. L. Deed (1996), "The importance of industry structure for the determination of firm profitability: A Neo-Austrian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3, 4, 429-451.

- Hunt, R. (1997), "Resource-advantage theory: An evolutionary theory of competitive firm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Issues*, 31, 1, 59-77.
- Ioannides, S. (1999), "Towards an Austrian perspective on the firm,"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1, 77-97.
- Jacobson, R. (1992), "Austrian school of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4, 782-807.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305-360.
- Jensen, M., and W. Meckling, (1992), "Specific and general knowledg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L. Werin and H. Wijkanders (Eds.), *Contract Economics*, Oxford: Blackwell, 251-274.
- Katz M. L., and C. Shapiro (1985),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75, 424-440.
- Kirzner, Israel M.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rzner, Israel M. (1987),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in J. Eatwell, M. Milgate, and P. Newman (Ed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4 Vols. London: Macmillan.
- Kirzner, Israel M. (1988),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Austrians,"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 1-18.
- Kirzner, Israel M. (1992), *The Meaning of Market Process*, London: Routledge.
- Klein, P. G. (1996), "Economic calculation and the limits of organization,"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 2, 3-28.
- Kogut, B. and U. Zander (1992), "Knowledge of the firm, combinative capabilities, and the replication of technology," *Organization Science*, 3, 383-397.
- Lachmann, L. (1977), *Capital, Expectations and the Market Process*, Kansas City, MO: Sheed, Andrews, and McMeel.
- Lachmann, L. (1978), "An Austrian stocktaking: Unsettled questions and tentative answers," in L. Spadaro, (Ed.), *New Directions in Austrian Economics*, Kansas City, MO: Sheed, Andrews, and McMeel, 1-18.
- Lawrence, P. R. and J. W. Lorsch (1967),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J., K. Lee, and S. Rho (2002),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strategic group emergence: A genetic algorithm-based model,"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 727 - 746.
- Lewin, P. and S. E. Phelan (2000), "An Austrian theory of the firm,"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3, 59-79.
- Lippmann, S. and R. Rumelt (1982), "Uncertain imitability: An analysis of interfirm differences in efficiency under competi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13, 418-438.

- Loasby, Brian J. (1991), *Equilibrium and Evolu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Loasby, Brian J. (1999), "Edith T. Penrose's Place in the Filiation of Economic Ideas," *Oeconomia*, 29, 103-121.
- Machlup, F. (1982), "Austrian economics," in D. Greenwald (Ed.), *Encyclopedia of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 Mahoney, John T., and Stephen C. Michael. (2005), "A subjectivist theory of entrepreneurship,"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Boston: Springer.
- Makadok, R. (2001), "Toward a synthesis of the resource-based and dynamic-capability views of rent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387-401.
- Makadok, R. and J. B. Barney (2001), "Strategic factor market intelligence: An application of information economics to strategy formulation and competitor intelligence," *Management Science*, 47, 12, 1621-1638.
- Mason, E. S. (1939), "Price and production policies in large scale enterprises," *American Economic Review*, 29, 61-74.
- McAfee, R. P., H. M. Mialon and M. A. Williams (2004), "What is a barrier to e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4, 2, 461-465.
- McGee J, Thomas H. (1986), "Strategic groups: theory, research and taxonom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7, 2, 141 - 160.
- McNamara G, D. L. Deephouse, and R. A. Luce (2003), "Competitive positioning within and across a strategic group structure: the performance of core, secondary, and solitary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 2, 161 - 181.
- Mehra, A. (1996), "Resource and market based determinants of performance in the U.S. banking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4, 307-322.
- Menger, C. (1871),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Wien: Wilhelm Braumüller (Translated in 1981 as *Principle of Econom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iller, K. I. and P. R. Monge (1986),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A meta-analytic review,"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9, 4, 727-753.
- Mintzberg, H. (1990), "The Design School: Reconsidering the basic premises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 3, 171-195.
- Mintzberg, H. (1991), "Learning 1, planning 0: Reply to Igor Ansof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6, 463 - 466.
- Mintzberg, H. (1994), *The Rise and Fall of Strategic Planning*, New York: Free Press an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Mises, Ludwig von. (1920),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translated in F. A. Hayek (ed.) (1935),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87-130.

- Mises, Ludwig von. (1949), *Human Action*, San Francisco: Fox & Wilkes.
- Myers, S. C. (1977), "Determinants of corporate borrow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 147-175.
- Nair A, S. Kotha (2001), "Does group membership matter? Evidence from the Japanese steel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3, 221-235.
- Nelson, R. R. (1995), "Recent Evolutionary Theorizing About Economic Chang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1, 48-90.
- Nelson, R. R., and S. G. Winter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Boston: Belknap Press.
- Nickerson, J. A. and Todd R. Zenger (2004),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The problem-solving perspective," *Organization Science*, 15, 6, 617-632.
- Nonaka, I., H. Takeuchi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Driscoll, G. P. and M. J. Rizzo (1985), *The Economics of Time and Ignorance*, Oxford: Basil Blackwell.
- Pearce, J., II, E. Freeman and R. Robinson (1987), "The tenuous link between formal strategic planning and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658-675.
- Penrose, Edith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New York: Wiley.
- Peteraf, M. A. (1993), "Intraindustry structure and response toward rival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14, 519-528.
- Peteraf M, D. Shanley (1997), "Getting to know you: A theory of strategic group ident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Summer Special Issue 18, 165-186.
- Polanyi, M. (1966), *The Tacit Dimens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Porac, J. F. and H. Thomas (1990), "Taxonomic mental models in competitor defini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224 - 240.
- Porter, M. E. (1980),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New York, Free Press.
- Porter, M. E. (2008), "The five competitive forces that shape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86, 1, 78-93.
- Potts, J. (2007), "Value and exchang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0, 123-135.
- Priem, R. L. and J. E. Butler, (2001), "Is the resource-based theory a useful perspective for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 1, 22-40.
- Reed, R. and R. DeFillippi (1990), "Causal ambiguity, barriers to imitation,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88-102.
- Reger, R. K. and A. S. Huff (1993), "Strategic groups: A cognitive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2, 103-123.



- Robertson, P. L. and T. F. Yu (2001), "Firm strategy, innovation and consumer demand: A market process approach,"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2, 183-199.
- Rumelt, R. P., D. Schendel, and D. J. Teece (1991), "Strategic Management and Economic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 (Winter Special Issue), 5-29.
- Rumelt, R. P. (1988), "Competitive marketing strategy," Panel Discussion, ORSA/TIMS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Seattle, WA.
- Schmalensee, R. (2004), "Sunk Costs and Antitrust Barriers to Entry," *American Economic Review*, 94, 2, 471-475.
- Schumpeter, Joseph.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Y: Harper.
- Shane, S. (2000), "Prior knowledg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rganization Science*, 11, 4, 448-469.
- Shrader, C., L. Taylor and D. Dalton (1984), "Strategic planning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critical appraisal," *Journal of Management*, 10, 2, 149-171.
- Slater, S. F., E. M. Olson, and G. T. M. Hult (2006),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trategic orientation on the strategy formation capability-performance relationship,"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7, 1221-1231.
- Smith, K. G., C. Grimm, G. Young, and S. Wall (1997), "Strategic groups and rivalrous firm behavior: towards a reconcili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2, 149-158.
- Spender, J.-C. (1996), Making knowledge the basis of a dynamic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Winter, 45-62.
- Stigler, G. (1968), *The Organization of Industry*, Homewood, IL: Irwin.
- Teece, D. J., G. Pisano, and A. Shuen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7, 509-533.
- Vaughn, Karen I. (1994), *Austrian Economics 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yne, S. D and R. Grewal (2008), "Hybrid strategic group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9, 293 - 317.
- Willi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Free Press, New York.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New York.
- Wiltbank, R., N. Dew, S. Read, and S. D. Sarasvathy (2006), "What to do next? The case for non-predictive strate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7, 981-998.
- Young, G., K. G. Smith, and C. M. Grimm (1996), "'Austrian' and Industrial Organization perspectives on firm-level competitive activity and performance," *Organization Science*, 7, 3, 243-254.

Yu, T. F. (2003), "A subjectivist approach to strategic management,"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4, 335-345.

Zaheer, A and S. Zaheer (1997), "Catching the

wave: Alertness, responsiveness, and market influence on global electronic networks," *Management Science*, 43, 11, 1493-1509.

##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and Strategic Management

Woonghee Lee\*

### Abstract

Although Austrian libertarian economic though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in management literature, it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strategic management thought. For example, Penrose's seminal book,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was written under the principle of subjectivist methodology of Austrian economic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major tenets of Austrian economics and explore additional implications to current strategic management theories. Based on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Austrian thought, it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ustrian economics was revealed in the midst of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which started in 1920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uggest that Hayek's theory of knowledge and market process view are two of central themes in Austrian economic thought that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strategic management thought. Based on such observation, this paper attempted to apply the two concepts drawn to the three main areas of strategic management: 1) "Planning vs. Learning" debate in strategy formulation process, 2) Porter's theory, and 3) resource-based view. Finally, the paper discusses some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Austrian economics, evolutionary economics, and the newly emerging complexity theory. It is also suggested that Austrian economics has great potential to be applied in some research areas and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the theory of the firm,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Key words :** Austrian Economics, Strategy Formulation, Porter, Resource-based View

---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